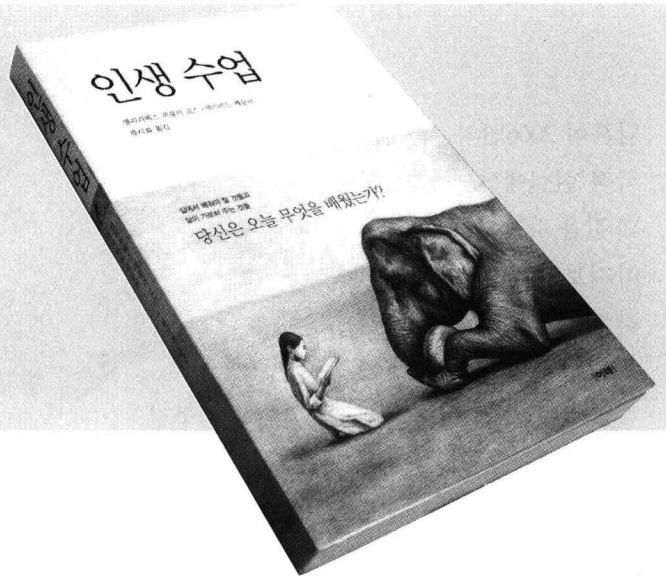


《인생 수업》

죽음이 가르쳐주는 삶



(인생 수업)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드 캐슬러 지음
| 류시화 옮김 | 이레 | 값 9,800원



글_ 정재현(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한국죽음학회 총무이사)

책 제목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인생 수업》은 문자 그대로 ‘삶의 배움’에 관한 것이다. ‘삶에서, 삶에 대한, 삶을 위한 배움’이겠지만 이렇게 주제를 풀고 나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넘쳐나는 것이어서 구태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저자와 역자로 옮기게 되면 느낌은 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평생 죽음의 현장에서 그녀의 체험을 되짚어 많은 깨달음을 나누어준 이른바 죽음학의 대가이며, 데이비드 캐슬러도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동역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자 류시화도 삶의 지혜에 관한 깊은 통찰을 엮어주는 이 시대의 구도자이니 이미 겉표지의 구성만으로도 이 책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었다.

그러나 로스와 캐슬러 두 사람이 죽음 문제 전문가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특히 로스가 그녀의 첫 저서 《죽음의 순간》(On Death and Dying)을 펴낸 이후 평생을 죽음 문제에 집중하여 20여권이냐 써왔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이 책은 그러한 흐름에서 비롯되는 예상을 다분히 넘어서었다. “죽음과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대한 책이 아니라, 삶과 살아가는 일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다”

고 저자 스스로도 밝히듯이 이 책은 삶에 관한, 삶을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죽음 전문가’들이 말하는 삶 이야기는 당연하게도 죽음 이야기와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 말하자면 삶을 죽음과 잇대어서 봄으로써 삶과 죽음이 따로 놀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음이 삶을 오히려 더 넓고 깊게, 그리고 심지어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까지 한다는 역설적인 통찰을 서슴없이 읊조려 주고 있다. 죽음을 덮어버리면서 잊어버리는 나날의 숨가쁜 생활을 살다가 결국 죽음의 순간 아쉬움을 터뜨리기보다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늦기 전에 앞당겨 살피고 이룸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리는 지혜를 구할 것을 갈파한다. 앞서 말한 ‘삶의 배움’이란 그래서 바로 ‘죽음이 가르쳐 주는 삶 이야기’라고 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역설이 이 책의 뼈대를 이루는 매력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죽음은 삶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인생 수업》이 열 꼭지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굳이 묶자면 다음과 같이 세 이야기의 흐름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죽음은 무엇보다도 대체할 수 없고 고유한 자기 자신에 대해 새삼스러이 주목할 것을 가르친

다. 그런데 이 때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허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는 현재의 자신을 말한다. 그리고 나아가 바로 그러한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결국 죽음은 우리에게 '자신'의 '현재'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굳이 이렇게 셋으로 정리한 이유를 곁들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욕망이 오히려 죄의식이 자라기에 비옥한 토양이 된다는 예리한 통찰을 읊조리는 죽음이 그러한 욕망을 넘어서 새삼스러이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라고 가르친다. 공연히 착한 체하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이로 인한 죄의식도 털어냄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자기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라는 통찰이 가리키듯 비움을 통해 자기를 이루는 삶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그러한 모순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고 반대되는 힘들 사이에서 균형을 통해 삶의 지혜를 구할 것을 설화한다. 죽음과 삶의 얽힘이라는 것이 이미 그렇게 모순을 역설로 엮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강탈당하고 결국 우리의 삶 뒤에 더 큰 그림이 있음을 잊어버리는 현실에서 바로 '현재'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도 죽음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현재보다는 과거나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부질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이유를 알 수 없는데도 부질없이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어리석음이 공연히 과거나 미래를 방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함으로써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의 신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너무도 뒤늦게 자각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면 이를 조금은 앞당겨 바로 지금 그 깨달음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셋째, 죽음은 결국 모든 두려움의 뿌리인 바로 그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사랑'할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삶의 종착점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증언은 두려움이 과거나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에 죽음이 가르쳐주는 자기에 대한 사랑은 이를 두려움의 변형인 자기도취나 이기주의로부터도 구별해냄으로써 우리를 현재로 불러낸다. 목표 지향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미래를 목적하는 수단이고 결국 후일 기록으로 남는 과거의 업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죽음은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죽음은 오히려 현재의 자신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놀이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까지 기염을 토한다. 이처럼 우리의 기대나 예상을 정면으로 거슬러 죽음이 오히려 삶의 역설적인 지혜를 이렇게 가르치니 어찌 우리의 눈과 귀가 쏠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간략히 추려본 이러한 가르침은 이 책의 다섯 번째 꼭지 제목인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을 절정으로 삼아도 좋을 듯하다. 결국 죽을 운명의 굴레에 갇히는 숙명적 패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두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굳이 풀자면 이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살라'라는 것이겠다. 이미 죽었으니 이제로부터 삶은 그야말로 덤으로 사는 것인데 무엇을 더 먹고 더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릴 것인가? 그저 버리고 비우는 것이 마땅한 길이요 오히려 이 길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역설이다. 나아가 '죽음 이후의 삶'을 죽음 이전에 맛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니 이 길이야말로 종교들도 그토록 설파하는 자유의 삶을 향한 지름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따분한 설교나 공허한 설법보다 더 깊이 우리의 심연을 파고드니 이토록 끌릴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리라. 그러나 과연 이 길이 그렇게 말처럼 쉬울까? 아마도 죽음처럼, 아니 죽음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 '죽음이 가르쳐주는 삶'이란 '죽음 이후의 삶'이니까 말이다!

☞